

# 기독교 인물 사상 사전



## 이천 년 역사를 아우르는 기독교 사상의 진수

자신의 역사를 모르는 사회는 기억력을 상실한 사람과 같다. 그래서 역사, 특히 사상의 역사가 중요하다. 《기독교 인물·사상 사전》은 기독교 역사와 서구 문화를 형성해 온 백여 명의 사상가들의 삶과 그들이 남긴 저서, 문서, 선언, 신앙고백의 핵심적 내용을 소개한다. 주후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하여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이 책은 기독교 사상의 진수를 담고 있다.

“긴결하면서 명료하고, 지적이면서 쉬운 책.” - (제3의 길)(Third Way)

“매우 흥미로워서 빨리 읽게 되고 매우 명료해서 천천히 읽게 된다.” - (스트레이트)(Strait)

토니 레인 Tony Lane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인문학 석사,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런던 신학교(London School of Theology : 이전의 London Bible College)의 역사신학 교수이자 연구 책임자로 있으며, 칼뱅과 칭화문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다.

# 장기려, 그 사람

## 오직 “주님만을 섬기다간 사람” 장기려

저자는 장기려의 글과 연설, 주변의 증언을 통해 인간 장기려를 있는 그대로 조명했다. - 동아일보  
그는 기년형 사람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죽을 때 묻힐 땅 한 평도 마련하지 않고 무소유를 실천했다. - 조선일보  
저자는 장기려의 글과 연설, 주변의 증언을 통해 인간 장기려를 있는 그대로 조명했다. - 동아일보  
장기려 박사님의 약정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 본 바도 없고, 내 스스로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분을 '성자'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장기려 박사로 성자라 부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손봉호(전 동덕여대 총장)  
장기려 선생은 나의 교육 철학의 모범입니다. 선생님은 항상 맨손으로 시작하지만, 얼마 안 가 조직적·창의적 노력과 결부되어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안병영(전 교육부총리)

그의 성경연구는 단순한 관념적인 사유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색과 실천을 통해 육화(肉化)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지각유철 저음/A5신변형/576면/양장/20,000원



http://www.hsbooks.com E-mail: hsbooks@hsbooks.com

홍성사.

홍성사.



弘 盛 社 Hong Sung Sa, Ltd. 121-885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7-9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이 소식지는 무가지입니다.

2007년 3-4월 14호

## 종교소설의 백미, 엔도 슈사쿠의 침묵



### 편집자노트

책을 만들면서 많은 기쁨을 느끼지만 그중 가장 큰 기쁨은 내가 먼저 원고에 감동받아 내용을 다 읽고 웃을 입혀 독자들에게 선보인 때가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침묵》과 함께한 날은 내게 큰 기쁨의 시간이었다. 내가 처음 침묵을 읽은 건 1993년. 그러니까 꼭 10년 전 일이다. 아무런 전례 없이 잠이 든 책이 빨리 들어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 '주어.....'라고 되뇌었던 기억이 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함께 그동안의 나의 편협한 생각이 무릎 꿇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죽음을 맞이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았다. 아울러 신사에 참배한 뒤 마음 졸이며 죄책감에 시달렸을 또 다른 신앙인들도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당신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난당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군요. 죽을 앞에 겁을 먹고 신사에 머리를 조아린 사람들과도 함께 계셨군요." 그리고 10년 후, 다시 침묵을 읽는다. 그리고 기도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며 고난의 시간을 맡았어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도 용기가 없어 애써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소서"라고. "하나님, 왜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라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해 아파하는 사람들과 이 책을 함께 읽고 싶다. 그리고 각자가 느낀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그려 보고 싶다.

### 가상인터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나누어 지시는 분입니다."

《침묵》은 선생님의 '최대 야심작'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침묵》을 쓰게 되신 동기는?

제가 1960년 말에서 1962년 여름까지 꽤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했는데, 투병 중에 나가사키에서 성화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도 시대에 그리스도교를 금하고 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학부가 고안해 낸 것으로서 성도 마리아상이나 예수 십자가상 등을 동판이나 목판에 새겨 바로 붙게 했지요. 제가 본 성화관에도 거꾸로틀린 말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 성화관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제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후 1965년 1월부터 침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에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그리스도교가 전래된 것은 1549년 8월, 자비에를 비롯한 다섯 명의 선부가 가고시마에 도착하면서입니다. 그 후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1560년대에 이르러서는 무려 전체 인구의 1.3퍼센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하지만 히데요시 시대의 봉건 정책과 맞물려 기독교 박해가 심화되었고, 1614년에는 그리스도교

대박해령이 전국적으로 선포되어 외국인 선교사 400여 명이 마카오와 마닐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후 영주들의 학정과 그리스도교 박해의 결과로 대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시마바라 난(原野の叛乱)'입니다. 시마바라 난 이후 쇄국령이 내려져 네덜란드인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을 금하고 1641년에는 네덜란드인까지 나가사키 데지마로 이주시켜 학부의 감시를 받게 했는데, 《침묵》은 시마바라 난 전말 이후인 1637년부터 1644년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 어디까지가 창작인가요?》

이 작품은 역사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 무고인 로드리고는 요세게 켈라라는 실존인물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로드리고의 일본 이름 오카다 산에몬(岡本三右衛門)은 요세게 켈라의 일본 이름 오카모토 산에몬(岡本三右衛門)에서 따 왔지요. 요세게 켈라는 이노우에 지쿠고노기미의 고문과 '구명' 대담가 행방을 받고 파교한 다음, 일본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노우에가 살던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1685년 8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나가사키 데지마(出島)' 네덜란드 상사원 요나센의 일기 도 역사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켈라를 포함한 세 명의 선교사가 일본에 잡알하여 모두 배교했지만, 작품 중에는 한 명의 선교사는 잡알하지 못하고 다른 한 명은 순교한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배신자를 등장인물로 한 작품이 많은데요,》

상황이 그렇듯이 제 작품에도 비겁자, 겁쟁이, 배신자로 그려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를 받아 버린 유다는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배신자였습니다. 《침묵》에 나오는 기지까지도 그랬고, 결국 로드리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존재의 결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 아닐까요.

《기의 모든 작품에서 종교적 문제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탐구해 가며 인간 영혼과 육신의 싸움과 갈등을 주제로 작품을 써 왔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예수는 '동반자 예수'입니다. 율법이나 교리에 갇혀 있는 예수 신앙보다는 맛깔스런 예수가 아닌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고난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짓는' 그런 예수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깨닫고 싶어하는 병자나 세리나 창녀에게 헌혈하는 사랑을 보여 주시면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 지시는 분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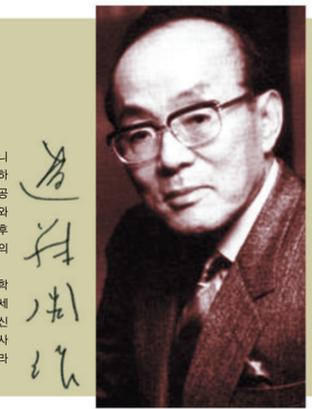
참고 자료: 황필호, 《엔도 슈사쿠의 종교소설 읽기》, 신원출판사, 2002; 민선인,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 나타난 '고통'과 '구원'》,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6; 김배사,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 있어서 신과 인간의 관계》,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

이현주(현주@hsbooks.com) 2007년 2월호 2페이지에서

### 저자소개

#### 엔도 슈사쿠

일본의 대표적 현대 소설가. 1923년 도쿄 출생. 기독교 신자인 이모의 영향으로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 된 뒤, 엔도도 어머니와 이모의 권유로 열한 살 때 세례를 받았다. 1949년에 게이오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장학생으로 프랑스 리옹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을 공부했다. 1965년 발표된 《역전》(逆轉)으로 이우타가와 상을 수상하고 현대와 동양(東洋)의 충돌로 일본 문학을 거스린 자리를 굳혔다. 여러 차례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었으며, 종교소설과 세속소설의 차이를 무너뜨린 20세기 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6년 사망.  
대표작 《침묵》(1962)은 그에게 다스리기 상을 준 것 작품으로서 오랫동안 신학적 주제가 되어 온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 어디 계시는가?'라는 문제를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토대로 진지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그려 냈다. 신앙을 부인(否認)한 실 수 있는 절재(絶罪)의 상황에서 고민하는 인물들의 심리묘사가 치밀하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영어·독일어·프랑스어 등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 홍성사에서 펴낸 엔도 슈사쿠의 다른 저작물

- 위대한 몰락 김광수 옮김/양음의 글음 18/A5신/344면/5,500원
- 예수의 생애 광명원 옮김/양음의 글음 19/A5신/214면/6,000원
- 그리스도의 탄생 김광명 옮김/양음의 글음 20/A5신/238면/5,000원
- 여자의 일생 공문예 옮김/양음의 글음 35/A5신/352면/6,000원
- 지금은 사랑할 때 김서현 옮김/양음의 글음 41/A5신/244면/5,000원
- 사해의 언저리 김광명 옮김/양음의 글음 95/A5신/304면/5,300원
- 마음의 야상곡 정기현 옮김/양음의 글음 141/A5신/224면/5,000원



### 지면추천

#### “침묵의 헌신……종교되지 않은 대답”

신앙이 있다는 것은 지극한 행복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다는 것은 처절한 고통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처절한 고통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침 신앙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분의 고통이 그로써 처절한 것은 육체적 고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는 그 고통의 내력을 외마디 절규로 토해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겪은 고통이 전자기 힘든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수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이 침묵입니다. 못 볼 체합니다. 왜 나를 버리셨느냐는 외침은 하나님의 이 침묵에 저항하는 절규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육신으로 수많은 사람을 멸할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흐든 힘을 주신 그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들 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아바 아버지였던 그 기쁘고 다양한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버리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것은 신도들의 몸입니다. 성화가 그려진 동판을 발기 위해 쉴 때, 로드리고는 신부는 거기 새겨진 그분의 모습을 봅니다. “발도도 좋다. 네 발이 아픔을 내기 제일 잘 알고 있다. 발도도 좋다. 나는 버려에게 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낸 것이다.” 소설의 모든 이야기는 이 한디를 향하여 달려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은 십자가의 절규만큼은 아닙니다. 그 절규는 구원 시편의 절규에 광명하는 것입니다. 그 절규는 허물 없는 유일한 고백이 이 몸들을 질할까 그려 냈습니다. 일본 천주교 절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신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회의 절은 신부 셋이 신앙에 붙다 못래 일본 명으로 전입합니다. 신부들은 다 체포되었고,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를 강요받습니다. 로드리고와 함께 잡힌 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성화를 받으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죽어 갑니다. 배교를 거부한 예수는 사하는 목이 절됩니다. 그의 절망은 피가 “물줄기처럼 헌혈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부는 전몰합니다. 그러나 그들 더 못 건디게 만드는 것은 하

남님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믿고 없고 세상은 너무나 평온 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물은 여전히 한껏 헛웃음이 울서 내리려고 있다. …… 이끼와 마친가지로 미미가 없는 소리를 내면서 계속 울고 있다. 바 평은 잠정하다. 멀리 한 마리가 여전히 날개 소리를 내며 자신의 울기 줄 위를 돌고 있다. 끌리는 조종도 달려진 게 없다. 한 인간이 죽었다는 사실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 “발이라, 발하기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은 이들의 죽음을 앞에서 침묵합니다. 신자들이 거역에 반대기처럼 밀려서 바다에 떠밀려 죽어 갈 때도 하늘은 잠잠하고 바다는 고요합니다. 신부는 절규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 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기도와 구구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신부는 배교하고 앞을 향하던 그 하나님, 아바 아버지였던 그 기쁘고 다양한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버리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것은 신도들의 몸입니다. 성화가 그려진 동판을 발기 위해 쉴 때, 로드리고는 신부는 거기 새겨진 그분의 모습을 봅니다. “발도도 좋다. 네 발이 아픔을 내기 제일 잘 알고 있다. 발도도 좋다. 나는 버려에게 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낸 것이다.” 소설의 모든 이야기는 이 한디를 향하여 달려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은 십자가의 절규만큼은 아닙니다. 그 절규는 구원 시편의 절규에 광명하는 것입니다. 그 절규는 허물 없는 유일한 고백이 이 몸들을 질할까 그려 냈습니다. 일본 천주교 절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신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회의 절은 신부 셋이 신앙에 붙다 못래 일본 명으로 전입합니다. 신부들은 다 체포되었고,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를 강요받습니다. 로드리고와 함께 잡힌 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성화를 받으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죽어 갑니다. 배교를 거부한 예수는 사하는 목이 절됩니다. 그의 절망은 피가 “물줄기처럼 헌혈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부는 전몰합니다. 그러나 그들 더 못 건디게 만드는 것은 하

####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엔도 슈사쿠는 《침묵》에서 이 절망적인 물음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침묵》은 소설이긴 하지만 실제 상황과 인물이 거대한 역사적 현실성을 가지고 이 몸들을 질할까 그려 냈습니다. 일본 천주교 절규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회의 절은 신부 셋이 신앙에 붙다 못래 일본 명으로 전입합니다. 신부들은 다 체포되었고,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를 강요받습니다. 로드리고와 함께 잡힌 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성화를 받으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죽어 갑니다. 배교를 거부한 예수는 사하는 목이 절됩니다. 그의 절망은 피가 “물줄기처럼 헌혈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부는 전몰합니다. 그러나 그들 더 못 건디게 만드는 것은 하

이현주(현주@hsbooks.com) 2006년 12월호 12페이지에서

click!! click!! **www.hsbooks.com**  
홍성사 홈페이지 둘러보기

홍성사. **장기려, 그 사람**

1974-76

2006

1982

1996

소설 읽기

하루는 그 소녀가 끈이 달린 일크방을 달랑달랑 들고 가고 있었다. 뒤에서 가만 보니 빨간 일크방이었다. 끈이 그 일크방 목에 묶여 있고 끈 끝에는 동그란 쇠고리가 있어 그 고리 속에 손가락을 끼워 들고 가고 있었다. 교장 선생이 책상 위에 두기 위해 일크방을 들고 오도록 심부름을 시킨 모양이었다. 그런데 얼마 기다 그만 고리에서 손가락이 빠지면서 일크방이 걸가의 개울로 떨어지 버렸다. 소녀는 우뚝 멈춰 서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내가 개울로 펴켜 뛰어내려가 말없이 그 일크방을 집어 주었다. 소녀는 그 큰 눈만 빼놓고 온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더니 다시 고리에 손가락을 꼭 끼워 넣고는 일크방을 달랑달랑 들고 갔다. 나는 그 뒤를 여전히 따라가면서 일크방이 다시 떨어지기를 바랐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4학년 말쯤 아버지는 부산 시내 쪽에 있는 봉래국민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나도 곧 뒤따라 전학을 하였다. 좋 있다 우리집도 봉래국민학교가 있는 영주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봉래국민학교에도 그 교장 선생의 딸과 같은 소녀가 하나 있었다. 눈이 얼마나 크고 예쁜지 말려서 보어도 그 소녀는 금방 눈에 드러나 보였다. 그 소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은 5학년 초였다. 그때 그 소녀는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장에서 고무줄놀이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방구슬이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달아나다 그 소녀와 그만 부딪치고 말았다. 소녀는 화난 표정으로 나를 쫓아지게 쳐다보았다. 그 화난 얼굴과 눈이 그렇게 예쁠 수 없었다. 나는 이토록 예쁜 소녀가 이 학교에 있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후로 나는 늘 학교에 가면 그 소녀를 찾게 되었다. 소녀가 놀고 있는 군방을 뛰어다니며 그 소녀의 눈에 띄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 소녀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자주 아버지와 나란히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그 소녀가 학교 선생님이 내 아버지를 보고 공손히 절을 하는 때가 종종 있었다. 그때에도 아버지가 곁에 서 있는 나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은근히 시기심이 났다. 6학년이 되었을 때 그 소녀는 여학생들의 반장이 되고 나는 남학생 반의 반장이 되었다. 봉래국민학교는 한 학년에 열 개 기량의 학급이 있을 정도로 제법 큰 편이었다. 그 열명 기량의 반장 중에 그 소녀와 나도 끼어 어린이회 모임 같은 데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지만, 그 소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한 번도 가지지 못했다. 10월이 되어 부산 시내 전국민학교 대표들이 모여 대신동 쪽에 있는 보성국민학교에서 한글날 백일장 대회를 가지게 되었다. 봉래국민학교 대표로서는 그 소녀와 나를 비롯하여 대이섯 명이 참가하였다. 그때 문예반 신장님 한 분과 대표들이 시를 택한 다음 대결해서 타고 보성국민학교로 갔다. 그 소녀와 다른 여학생들은 자리에 있고, 나와 또 다른 남학생은 좌석 사이의 빈 자리에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서서 가게 되었다. 얼마 가다 택시 운전사가, 승객이 있으니 남작하게 주저앉으라고 다급하게 재촉을 하였다. 나는 영겁결에 주저앉았다. 그런데 바로 그 소녀의 양무릎 위에 앉게 되었다. 여학생들이 특극 웃음을 터뜨렸다. -계속

야훼의 밤

1. 제 1부 감대바다 지편상 2. 조성기 장편소설

**한국교회 개척과 독립운동으로 순국한 배설일가 이야기**

이 소설은 19세기 원년, 곧 180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에 걸친 시간의 환경을 바탕에 깔고 출판된다. 조선조의 충주 관찰사 배수우, 오늘날의 김해교회를 세운 배성두, '대한광학회'의 일원으로서 3·1 만세운동의 주동자로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 배동식 일사! 이 책은 치열한 배설일가의 삶이 소설적 기록으로 생생한 실화소설이다. 박경숙 지음/민음의 글들 242/A5선본형/408면/12,000원

**봄을 맞는 준비, 시편시편시편**

홍성사. T. 02-5355-5161 E. 02-5355-5165 http://www.hsbooks.com

**유진 피터슨의 시편**  
시편으로 드리는 **매일기도**  
유진 피터슨 지음/이철민 옮김/민음의 글들 175/B6변형/384면/8,800원

**C.S. 루이스의 시편**  
시편 **시편이해**  
C.S. 루이스 지음/이종대 옮김/민음의 글들 218/A5선본형/200면/양정/9,800원

**본회퍼의 시편**  
본회퍼의 시편 **시편이해**  
디트리히 본회퍼 지음/최진경 옮김/민음의 글들 241/B6변형/112면/양정/7,000원



입고완료 入庫完了

레프트 비하인드 Left Behind 4- 영혼 추수

서서히 사라지는 영혼의 대추수. '남겨진 사람들'은 과연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인간의 흑과, 비로 물든 달, 거대한 대지진! 지구 또 한 번 아수마상이 된다. 전 세계를 뒤덮은 화염과 불길 속에서 절망의 불꽃만이 배아타고..... 뿔뿔이 흩어진 '참나' 군대는 과연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평사원 24 장만으로도, 다음 권은 나오세요.  
\*가슴이 떨리고, 공명하며 주머니다. \*40여 개 화염 6274년  
\*죽기, 비록 눈보라가 아닌 하지만 이렇게 멋진 화사다  
\*상대적으로 친하게 다그쳐 놓았지만 한니다. \*40여 개 화염 6274년  
\*상당한 상상력과 번개 같은 상상력 문장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름 안에 무~속이 보여줍니다. \*~특별한 감동입니다.  
\*소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레프트 비하인드)가 출간되면 기다리며 읽주어도 몇 몇만 사해서 볼려는 내 마음에, 나조차도 신랄하게 대했다. \*40여 개 화염 6274년

**틸 라이어히- 제1권: 지옥/CR번역연구소 옮김/A5선본형/10,000원**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는 정말 재미를 맛보는 독자들에게 계속 출간됩니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Till We Have Faces 다시 쓰는 신화

**루이스 자신이 최고의 작품으로 꼽은 바로 그 소설!**  
'파티도와 프시케 신화'를 기점으로 기독교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이 이야기는, 창상학과 신앙의 본질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온전히 탐색하도록 인도하는 매력적인데서도 풍찰력 빛나는 신화 소설이다.

\*이 요절한 이야기를 재해석해 보고 싶은 심정은 내가 대대적인 시집부터 시작되어,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갔다.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내내 이 책을 써 왔고도 할 수 있다. \*C. S. 루이스

\*'죽어, 이것은 당신이 예 대담지 않았는지 아니다. 당신 자신이 대담합니다. 모든 믿음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 버립니다. 다른 무슨 대담을 들은들 언젠가쯤은 아니까? 다 알, 말했었다. 다른 말들과 싸우기 위해 끝어는 알. 오랫동안 저만 당신을 미워했고, 오랫동안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 -본문에서

**C. S. 루이스 지음/김유나 옮김/민음의 글들 240/A5선본형/368면/양정/16,000원**  
\*C.S. 루이스의 신앙 도서 한국어본은 홍성사가 국내 유일의 정통 개혁신앙을 받고 '정신 C.S. 루이스 클래식' 시리즈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장기려, 그 사람

**오직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  
평생을 무수유와 분사로 일관한 장기려의 인생 개혁신은 그 전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한겨레

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죽을 때 팔팔 땀 한 방도 마른적이 없고 무수유를 실천했다. -조선일보

저자는 장기려의 글과 연설, 주님의 증언을 통해 인간 장기려를 있는 그대로 조망했다. -동아일보

**지광유철**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및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역임, 월간 (인물과 사상) 객원 인터뷰어와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으로 활동. 주요 저서 (요셉의 회상)(홍성사), (안티 혹은 미아나)우정출판사.

**지광유철 지음/A5선본형/576면/양정/20,000원**

제작진행 製作進行

**영성과 삶**  
모세로 일명수 목사가 전하는 '참다운 영성의 길'  
영성, 화평,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발견해 가는 공동체와 더불어 있는 각 사람들이 영적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영성 공동체인 모세로의 대표 일명수 목사의 영성 탐구서. 날로 황폐해져 가는 세상에서 현대 안을 걷는 길에 있는 문명들, 자기 상실, 인생의 의미와 목적, 자기 의의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영성의 관점에서 풀어주고 있다. '영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영성에서 참된 영성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궁극하는 이들에게 영성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 준다.

영성생활에 관하여 어느 시점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에서 계속되는 영성생활이다. 그 과정에는 사랑, 신실, 신의, 신의의 모든 요소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영성이 없다. 이 요절은 태 운은 영성의 새로운 사상을 소개해준다. 안 된다. ---영성생활의 주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에서 영성이 되고 싶지 않는 한, 우리는 영성으로 돌아갈 수 없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문에서

**일명수**  
평화교회, 남대문로, 영학교, 주님의교회 담임목사를 거쳐, 현재 영성 공동체 모세로의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2주 동안 배우는 사도신학 학교), (영성) 중반 배우는 주기도문 학교(우정출판사) 등이 있다.

**일명수 지음/B6변형/230면 내외/4월 출간 예정**  
책임편집: 김태우 khs@hsbooks.com

**굿간원리**  
크리스천의 부처 원리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잘 다스리는 원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은 중화하지 않'이라고 믿지만 현실은 하루 대부분을 돈 버는 일에 사용하며 나머지 시간에도 돈을 어떻게 쓸지, 돈이 어떻게 써 내는지 계산하는 일에 소비한다. 또 관례적 장이 되어야 할 시간에 돈을 뒤적이면서 돈 걱정을 한다. 돈은 원치 않는다는 사람들이 돈 생각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저자는 바르게 부자 되는 것이 비장정적이지 않음을 역설하며 자신이 깨닫고 실천해 부자가 된 '갓간원리'를 소개해 준다. 저자는 이 '갓간원리' 교회의 개교와 가정과 사회, 심지어 정부까지 혁신하는 새로운 재정정책 안을 창출하는 성경적 아이디어라고 확신한다.

**엘 텐들** Al Jandi  
목사부 위한 목사이, 21개 나라 비전 리더로 알려진 영인. 기독교 학교와 사회에서 생명을 운영하는 라임스톤교회 Living Stones Church) 담임.

**엘 크로치** Van Crouch  
번 크로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컨설팅 회사의 창업자, 유튜브도 유명한 연설가.

**엘 텐들-번 크로치 지음/김성경 옮김/A5선본형/224면 내외/3월 출간 예정**  
책임편집: 한영진 myhan@hsbooks.com

**사회책임투자, 세계적혁명**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사회책임투자'의 거목 러셀 스파크스의 성경적 투자 이론서!  
사회책임투자란 투자 종목을 고를 때 재무성과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에 대한 공헌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의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비롯해 고려하는 종합적인 관점의 투자방식이다. 김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러의 사상을 근거로 한 '사회책임투자'는 돈도 벌고 좋은 세상도 만들어 가는 가치 있는 투자로 알려져 있다.

**러셀 스파크스** Russell Sparkes  
80년 초 윌리엄슨 본사에 투자회사에 대한 세계적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94년부터 영국 김리교의 중앙재무위원회(Central Finance Board)를 위해 헌신해 왔으며, 영국 사회책임투자 포럼(The UK Social Investment Forum)의 비준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영국 김리교의 중앙재무위원회 부주임(Executive Director)을 역임하고 있다.

**러셀 스파크스 지음/김성경 옮김/코리야 옮김/600면 내외**  
책임편집: 이현주 L.H.U@hsbooks.com

**쉽게 읽는 삼위일체 신학과 영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통찰적인 이해와 경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미리쯤 혼란스럽게 한다고 그냥 덮어 둘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돕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특히 삼위일체론 자체가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고안된 쉬운 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눈높이를 맞추어 저술했습니다. -머리말에서

**장성욱**  
세계 복음주의 신학계의 주역인 초빙 신학자로서 미국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영국 옥스포드 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영국 옥스포드 교수 지도하여 초빙학인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대학 신학교 초빙학인 교수.

**장성욱 지음/A5선본형/240면 내외**  
책임편집: 이현주 L.H.U@hsbooks.com